

일자리 및 노동 격차

홍민기*

이번 『노동리뷰』 11월호 특집에서는 일자리 및 노동 격차에 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이 연구들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한국사회 격차현상 진단과 대응전략 연구』(2023년 발간 예정)에 수록된 것이다. 한국 사회의 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호 특집에 실린 연구는 일자리와 노동의 여러 가지 현상을 대상으로 격차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격차’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사전에서 격차는 서로 다른 정도를 뜻한다. 차이와 사실상 의미가 같다. 예를 들어, 임금 격차는 지급되는 개별 노동자 임금의 차이를 뜻한다. 성별 임금 격차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를 가리킨다. 어떤 사람들은 여감에서, ‘격차’는 차이가 좀 더 크거나 부당하다는 가치 평가가 다소 포함된 단어이고, ‘차이’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특집에 실린 연구에서는 격차와 차이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사용한다. 참고로, 사전에서 ‘차별’은 차이에 더하여 서로 다르게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평등’은 차별이 있어서 고르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

특집의 첫 번째 연구, “일자리 분포의 지역 격차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비교를 중심으로”에서는 일자리 분포의 지역 격차를 분석하였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 격차를 비교한다. 한국은 인구와 생산활동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집중도가 매우 높다. 수도권은 한국 총면적의 12%를 차지하는데 인구와 생산활동은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일자리도 수도권이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연구 결과에서 연령별, 산업별 일자리 증감 추세가 흥미롭다. 청년 일자리는 수도권에 비수도권에 비해 많다. 반면, 노년 일자리는 비수도권에 더 많다. 수도권에서는 정보통신업 종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보건사회복지업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정보통신업의 고임금 전문가나 사무직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지역 간 임금 격차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 고용구조의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은 인구 고령화와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발전이다. 연령구조의 변화와 기술발전의 효과가 결합되어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hminki@kli.re.kr).

확대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산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수도권에 많아서 비수도권에 있는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는 인구구성의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고령층이 많을수록 돌봄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고령 돌봄이나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연령대가 높다. 고령층이 많은 비수도권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따라서 사회복지업 취업자가 빠르게 증가한다. 사회복지업은 상대적으로 저소득 일자리이다. 비수도권에서 사회복지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수도권과의 임금 격차도 확대된다.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 격차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같이 논의하였다.

특집의 두 번째 연구는 “노동자의 여가시간 격차”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남성의 가사 및 돌봄노동 시간이 증가하면서 성별 여가시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여가 활동에서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남성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시간 지원 정책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하며, 장기간 노동을 해소하고 근무 방식을 유연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에 따른 여가시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연구에서는 주변에 저렴하면서 쉽게 스포츠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많을수록 소득에 따른 여가 활동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고 하면서, 여가 활동을 위한 공공 기반시설 확대를 강조하였다.

특집의 세 번째 연구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격차를 살펴본다. 노동조합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에 성, 나이, 세대, 종사상 지위, 지역 등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히 지역과 세대별 인식 격차가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격차에 큰 영향을 준다. 거주 지역에서 형성된 네트워크와 분위기에 개인의 인식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세대 내에 공유된 경험이 나이가 들어도 지속적으로 인식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 『노동리뷰』에서 다룬 연구를 비롯하여 앞으로도 사회의 여러 가지 격차 현상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기를 바란다. **KLI**